

서울캠 7개 건물 안전점검 'C등급'

점검 업체 동양기술 '장기사용하려면 보수공사' 권고

서울캠 안전점검 결과

양진원 기자 ewsn0614@khu.ac.kr

【서울】 한의과대학관을 비롯한 문과대학관, 이과대학관, 학생회관, 교수회관, 국제교육원 등 총 7개 건물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건물의 종합평가 결과가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C등급은 건물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특히 건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콘크리트 강도는 모두 A등급(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6일부터 지난날 1일까지 진행됐으며, 우리학교가 동양기술에 의뢰해 실시했다.

학생회관 ‘기울고’, 교수회관

지하 1층 ‘철근부식 우려’

점검결과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 것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이다. 학생회관의 경우 건축물 기둥기둥 C등급으로 나타났다. 학생회관의 건축물 기둥기둥 측정값은 127.13mm~151.47mm로, A~B등급을 받은 한의과대학관의 기둥기둥 측정값 1.95mm~37.36mm과 약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 2011년 발간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해설서(건축물)>에 따르면 건축물 기둥기둥등급은 '구조물의 경사도가 감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교수회관의 경우 탄산화깊이 측정값은 0.81mm~34.16mm로 A~D등급으로 나타났다. 탄산화깊이는 콘크리트의 중성화정도를 뜻하며, 건물의 내구력과 철근부식 등에 영향을 준다. 이런 교수회관의 탄산화깊이 측정값은 A~B등급으로 나타난 약의과대학관 측정값 3.18mm~7.21mm과 약 5배 차이가 났다. 특히 교수회관 지하 1층의 탄산화깊이 측정값은 21.73mm~34.16mm로 방치시 철근부식에 따른 구조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점검이 실시된 모든 건물에서 '경미한 누수흔적이 발견'됐다. 동양기술 측은 점검보고서를 통해 '누수가 모두 경미해, 건물의 안전이나 구조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방수문제 보수방안을



토대로 보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고했다.

“구조 안전문제는 없지만..”

장기적 사용위해 보수 필요

이번 점검이 실시된 7개 건물은 지어진지 평균 45년이 지났다. 동양기술 측은 “신속 건물도 A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며 “경회대 건물들은 노후된 것에 비해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점검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와 같이 장기적인 사용과 편의를 위해 보수 공사는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주무 부서인 관리팀 측은 “당장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물의 안전점검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설계도면 등의 관련자료 검토, 육안검사와 (비)파괴검사, 건축 하자 발생 부위 혹은 용도 변경 부위에 대한 구조 안정성 검토 등을 토대로 했다. 콘크리트 강도, 탄산화 깊이, 건축물 기둥기 등의 항목에 등급을 매긴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내렸다.

▶1면에서 이어짐

공과대학 측은 이미 학사지원과에 입
장전달을 완료한 상태다. 공과대학 학사
담당자는 이에 대해 “ABEEK 프로그램
의 실효성을 두고 지난 1년간 내부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다”며 “ABEEK
단일 커리큘럼으로 가기에는 학생들에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체적으로 전공역량을 갖춘 방법을 모
색 중이다”고 말했다. 공과대학은 개
강 직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ABEEK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
고 2018년도 2월 졸업자까지 ABEEK 희
망 대상자들에 한해 관련 교육을 책임질
계획이다.

반면 전자정보대학 측은 공인원의 공문을 받아들여 일반형 커리큘럼을 ABEEK 커리큘럼에 통합할 계획이다. 전자·전파공학 수준형 학과장은 “경직된 운영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ABEEK은 전공교육의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최근 공인원이 교육부 산하기관이 되었으므로 학과 역량평가에서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컴퓨터공학 측 담당자 역시 “전공교육의 측면과 서울여고다 사업 기준 유지 등에서 ABEEK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단과대학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반면, 학생회들의 입장은 매우 뚜렷하다. ABEEK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ABEEK을 강제화하지 않는 공과대학 경우 전체 인원 대비 10%만이 ABEEK 커리큘럼을 유지하는 상태다.

도입 직후부터 학생사회에서 꼽았던 논란은 크게 세가지다. 교육과정의 문제, 취업 시 혜택 논란, 그리고 수강신청 시 행정문제가 그것이다. 위 사항은 대개 학기 초마다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들이다.

윤수호(건축공학 2010) 군은 “학과 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찌감치 ABEEK을 포기한다”라며 “수강신청도 힘들고 기업에서 주는 혜택도 미미해 다들 포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ABEEK은 대상자들의 교양·전공 과목에도 수강신청 시 ‘ABEEK 표기’를 명시해 해당 과목만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일반학생들은 일반 과목과 ABEEK 과목 양쪽 다를 수강할 수 있는 반면, 대상자들의 선택 폭은 좁은 상태다.

교육과정의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교내에서는 ‘지정된 전공과목과 일부 교양과목을 순서대로 이수하는’ 형태

의 프로그램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그 학점 수가 휴머니티스 칼리지 필수교양과 겹쳐 졸업 시 까지 '정해진 수업'만을 순서대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례로 컴퓨터공학의 경우 학번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ABEEK 지정 전공 90~95학점(이중 전공선택은 26과목 중 9과목, 27학점이 필수), ABEEK 지정 교양과목과 휴머니티스 칼리지 필수교양을 합친 30~35학점 까지 최소 120학점 이상이 지정돼 있다. 김민지(컴퓨터공학 2010) 양은 "교육과정외 정형제에 있어 선수강 제도로 overlook이 잇헛기 휴학, 재수강 등의 과정이 복잡하다"며 "마음대로 포기도 안돼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컴퓨터공학은 학과 시행세칙으로 다전공자 이외의 ABEEK 포기를 금지하고 있다. 전자·전과공학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기를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과대학 ABEEK 교육인증 과정

졸업이수 학점		13.0
교양이수 학점		전체 35 (지정과목 20)
전공이수 학점	MSC	30
	전공필수	18
	전공선택	36
	합계	84 (설계과목 12)
공학교육인증		인증 필
졸업논문		통과
전공영어 강좌이수		3과목 이상
졸업능력 인증제도		PASS

타 학교 역시 ABEEK의 실효성에 대해 점차 의구심을 품는 추세다. 올해 서강대의 경우 ABEEK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교내에서 심화전공제도를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서강대 김두승(기계공학 2011) 군은 “학교 자체의 심화전공제도가 ABEEK 프로그램을 대체하면서 큰 틀에서의 차이점은 못 느꼈다”며 “하지만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제도가 생략돼 현재보다 더 실질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자정보대학은 ABEEK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공과대학은 ABEEK 단일 과정 통합을 거부하는 입장이어서 2009년 도입돼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야기한 ABEEK 프로그램이 우리학교에 어떠한 형태로 남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경희대학교 대학의 소리 방송국

미디어센터 | VOU | 대학주보 | 영어신문 | 대학원보 | 동문회보 | 의생명보 | 교향 | Admin

VOU소개 | VOU뉴스 | 오디오방송 | 영상방송 | 특별방송 | VOU커뮤니티

(AD서사) 당신의 마...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도서관가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Voice Of University
Voice Of University

자연&산학곡
facebook

서울캠퍼스
AM : 08:20 ~ 08:55
PM : 12:10 ~ 01:00
PM : 05:35 ~ 06:10

01 VOU뉴스
02 오디오방송
03 영상방송
04 특별방송

경희교육포럼 개최
지난 26일 우리학교 교육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희교육포럼이 개최됐습니다.

VOU방송국 방송국소개
VOU방송국 부시소개
VOU방송국

Voice Of University, 대학의 소리 방송국이라는 이름의 V.O.U는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학내 정보를 전달하고,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V.O.U는 항상 경희 구성원과 대학의 지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겠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여러분의 대학소리 방송입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의소리방송국